

파주염씨홈페이지
(<http://www.pajuyom.kr>)

坡州廉氏大宗會報

조상승배 (祖上崇拜)
후손육성 (後孫育成)
종친화목 (宗親和睦)



대종회 회장 6년을 기리며!!!

단은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자족보를 바탕으로 책자족
보 발간 요청이 있어 희망하
신 분의 뜻을 받들어 무술보
(戊戌譜 2018)을 300여 질
발간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전국에 계신 일가분께 인사
드립니다. 지난 6년여 대종
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열
과 성을 다하여 염문의 화목
과 소통을 위하여 아쉬운 면
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였
다고 자숙해 봅니다.

· 전자족보 무술보(戊戌譜
2018) 발행은 4만명을 잡았
으나 8천여명으로 약 20%정
도에 그쳐 아쉬움 가운데 일

현성금을 해 주셔서 둘레석
(12자)으로 충경공, 국파공,
동정공, 청강공, 선조의 묘
를 정비하였습니다.

매년 잡초만 무성하여 선조
님에 대한 후손으로서 도리
를 다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하여 조상승배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 2015년도 통계청에서 인
구조사표에 의하면 전국에
69,378명의 염씨성의 인구
가 있고 그중에서 파주염
씨는 57,531명이며, 파평
5,515명, 경주 256명, 용담
217명, 나주 205명, 서원
205명, 전주 192명 등등

여러본의 염씨가 있으나 1차
적으로 30년 전 대종회 총회
시 파주염씨로 단일 본임을
결의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정정을 못하고 계신분이 많
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파주염씨는 시조형명(邢明)
증시조 매현(제신)으로 한
뿌리이나 뿔뿔이 헤어져 살
면서 본도 제대로 찾지 못하
고 살아왔고 방심한 상태로
봅니다.

본관 변경은 가정법원에 필
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하고 판결 이후 동사무소에
정정 신청하면 간단히 해결
될 수 있으니 파주염씨 본관

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불초 능력도 부족한 제가
대종회를 현재까지 이끌어
왔음은 지역종친회장님, 대
종회 임원진들 한결같은 도
움이 있었다고 보면 그간 힘
써 주신에 감사드립니다.

2019. 8

대종회 회장 염 문 규



파주염씨의 시조와 유래 및 내력

- 파주염씨는 중국에서 온 성씨가 아니다 -

한 거레나 가계의 맨 처음이 되는 조상을 始祖(시조)라 하며, 또 鼻祖(비조)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시조를 일컫기도 하며, 일부 성씨에서는 시조와 함께 創姓祖(창성조) 또는 得姓祖(득성조)를 모시기도 한다.

시조에게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부친과 조부가 있어 태어나기도 했을 것이고, 고려 초기처럼 왕이 많은 공신들에게 성씨를 하사하였는데 하사 받은 사람이 시조가 되며 득성조가 되는 것이고 통상 그 사람의 고향을 본관으로 한다.

요즘은 외국인이 귀화하여 새로운 성씨로 등록하였다면서 사람이 창성조이며 시조가 되는 것이다.

우리 파주염씨의 시조는 형명 '邢明' 이시다.

生卒墓는 미상이고, 호는 大司徒公(대사도공)이며, 벼슬은 三韓壁上公臣大司徒(삼한벽상공신대사도)이다.

시조의 출생과 돌아가신 연대 및 묘소는 미상이며, 벼슬 벽상공신에 대하여는 고

려 태조 23년(940) 新興寺(신흥사)를 重修(중수)하면서 功臣堂(공신당)을 세우고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포상하고 동서 벽에 공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를 삼한벽상공신이라 하며 公께서도 이때 三韓公臣(삼한공신)에 책봉되었다.

(고려사(高麗史) 7권 세가7문종1) '十年丙申二月甲午有司奏: "沒蕃人廉可稱軍器丞位之子三韓功臣司徒邢明之孫於庚戌年中...이하 생략." 고려 제 11대 문종 10년 병신(서기 1056년) 봄 2월에 유사가 아뢰기를 거란 군에게 잡혀 갔던 염가정은 군기승 '位'의 아들이고 삼한 공신 사도 '형명'의孫인데 경술 년중... 생략. '이라는 기록에서 시조가 삼한공신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1988년도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가 발행한 '전라문화논총'에 실린 박천식 교수의 논문 중 '삼한공신 일람표'에도 실려있다. 다음 염씨의 득성조라고 하는 海東譯史(해동역사)편의 2천여년전의

廉斯鑄(염사치)의 기록을 보면 '按後韓書建武中韓廉斯人蘇馬謨來獻光武封爲廉斯邑君則廉斯本邑名而爲氏也'

鑄集韻云測角切入名王莽時有 '후한서를 상고하면 건무중(서기 25~55년)에 한의 염사 사람 소마시가 래현하니 광무(서기 24년)가 염사읍의 군에 봉하고 염사는 본래 읍명 이었는데 이로 성을 삼았다 '는 기록에서 유래되어 염사치를 우리의 득성조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 성씨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연구되는 대상이다.

또 하나의 기록은 조선시대 조여적(趙汝籍: 선조~인조)이 쓴 청학집(靑鶴集)에 "廉氏出于帶方國也(염씨출 우대방국야)"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염씨는 대방국(帶方國)에서부터 왔다' 라는 것이다. 대방국은 황해도 일부와 경기도 서북부 장단(長湍) 풍덕(豐德)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이곳과 득성조 염사치가 살던 곳, 또 시조가 살던 곳 모두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인 것은 모두가 연관이 있지

않는가 싶다. 또 시조 이전부터 이 땅에는 많은 염씨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서기 647년 인 선덕여왕 16년에 국정에 참여했던 '염종'과, 648년 인 진덕여왕 1년 6공(六公) 가운데 1인으로 김유신과 함께 대신을 지낸 '염장'을 비롯하여, 국보제104호인 경복궁의 '염거화상탑'의 장본인 '염거' 등이 있고, 고려 개국 무렵인 918년경 '廉湘' 이 혁혁한 공훈으로 2등공신이 되었고, 고려태조 11~20년 간에 大相 '염경' 또 태조 26년(934년)에도 재신으로의 '廉相' 과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

또, 왕건 즉위 불과 10여일 후에 궁예 휘하의 잔존세력인 반란군 중 공주지역 실력자인 이흔암을 체포한 사람이 수의형대령 '염장'이고, 태조 1년 청주 출신 순군남중현율과 같은 반역자를 체포한 사람이, 마군대장군 '염상진'이다.

이러한 기록들로 우리 염씨는 2천년 전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고유의

토착성씨로 보는 견해이다. 그 어디에도 중국에서 왔느니, 신라 말에 귀화하였느니 하는 기록은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단지 그동안 기록으로 나타난 분들에 대하여 가족관계를 알 수 없다는 것뿐이지 유구한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려사의 기록에서 가장 주목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 찾기에 전념해야 할 부분은 고려 초기에 나타난 세 분의 관계이다.

시조이신 '형명'과 2등공신 '湘', 또 왕건의 유언 때 옆에 있었던 '相'의 세분에 관한 것인데, 기록으로 봤을 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각각 단막으로 끝난 것이 이상하다. 혹시 동일인은 아닌지 하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시조에 대하여는 그동안 회보에서나 인터넷의 우리 홈페이지나, 대동보 문헌록 등에서 수 없이 설명을 하였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우리 염씨가 중국에서 왔느니, 신라 말에 귀화하였느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오도록 가장 크게 악 영향을 끼친 것은 일부의 우리 일가들의 잘못도 있지만 1982년 6월 27일자 중앙일보의 ‘성씨의 고향’ 연재 중 우리 파주염씨 편에서 ‘略... 형명은 원래 중국

교목세가의 후예. 후당 때 국정이 어지러움을 비판하고 신라로 건너와...’ 하는 근거도 없는 엉터리 기사가 한 지역종친회원들의 사진과 함께 실렸고, 그 뒤 1990년대 인터넷이 한창 봄을 타던 시절 이 기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잘 못된 기사의 검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퍼 나르기 하면서 퍼져나갔다. 그때 관공서와 제대로 관리되는 대형 사이트는 거의 시정조치 하였으나, 일부 카페나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 사이

트들은 손을 댈 수 없었다.
1986년 대동보와 함께 발행된 문현록 52쪽에서
‘略... 중국계 염씨가 우리나라로 건너와 大宗을 이루고 산다는 史의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는 낭설이라 아니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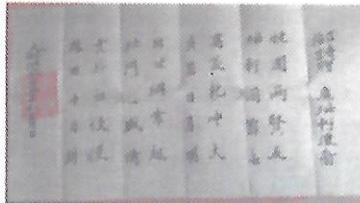
수 없다...’ 고 못 박았으며, 위에 언급한 모든 기록들이 증명하니 앞으로는 더 이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7

대종회 총무이사 廉明善

御詩 原本(어시 원본)을 다시 본다

–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중시조 매현(제신)을 칭송하는 어시를 내리다. –



[원본]

이 御詩(어시)는 1392년(627년전) 태조 이성계의 御筆(어필)로써 梅軒(매현/忠敬公)(충경공) 후예에게 贈(증)하다 라고 되어 있다. 족보나 문현상에 합천문중 仁山齊(인산제)에 所藏(소장)되어 있어서 실물을 사진으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민왕이 친히 그려서 하사했다는 초상화와 조선 태조 이성계가 친히 써서 하사한 御詩(어시)는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국보급의 유물이다. 두 왕조로부터 찬사를 받은 梅軒(매현)의 후예임이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고려시대에서는 忠敬公(충경공) 조선시대에서는 忠武公(충무공) 論號(시호)가 忠誠



[보관함]

忠字(충성 총자)를 써서 下賜(하사)한 일이 이 두 분밖에 없으며 그 왕조로부터 가장 존경받은 인물이었음을 증명한다. 이번에 공개된 御詩(어시)의 실물을 본 사람은 극히 제한 적이다. 화재, 도난 등 보안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 御詩(어시)를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한다. 1388년(戊辰/무진)에 이성계와 그 추종세력에 의해서 우리 家門(가문)이 滅門之禍(멸문지화)를 입었는데 5년 뒤 왕위에 등극한 이성계가 梅軒(매현)을 극찬하는 詩(시)를 써서 후예 누구에게 (증)했던 말인가? 또 어떤 경로로 합천 문중까지 왔을까?

團隱 鄭夢周(포은 정몽주)를 죽이고 牧隱李稿(목은 이색)을 귀양 보내 놓고 兩賢人(양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니! 참 怪異(괴이)하고 驚異(경이)로운 일이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考察(고찰)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까지 御詩(어시)를 많은 先賢學者(선현 학자)분들이 좋은 해석을 해 주셨다.

共感(공감)을 하면서도, 所藏者(소장자)의 부족한 所見(소견)으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 御詩證廉梅軒後裔(어시증염매현후예) : 임금의 시를 매현 후예에게 증하다
· 牧圃兩賢友(목포양현우) : 목은(이색) 포은(정몽주) 양

* 크기 : 가로 84cm 세로 43cm

* 재질 : 특수창호지(고려시대)

* 형태 : 한 방향접이식 5절(사진은 펼친 상태)

* 구성 : 詩題(시제) 落款(낙관)까지 六行(육행) 62字(자)

* 연대 : 大明洪武(대명홍무) 25년(壬申) 12월, 조선건국 원년

인은 훌륭한 현인이로다

· 梅軒同節名(매현동절명) :

매현 또한 같은 節世(절세)의 名賢(명현)이로다

· 古義乾坤大(고의건곤대) :

높은 義理(의리)는 하늘 땅 같고

· 貞忠日月明(정충일월명) :

정절과 충정의 밝기가 해와 달 같다

· 出世綱常起(출세강상기) :

세상에 나아가서 紀綱(기강)을 세우니

· 杜門心鐵鳴(두문심철명) :

문을 닫고 있어도 그 心性(심성) 알려짐이 징소리 같다

· 貢外勿侵役(공외물침역) :

부당한 놈들과 노역을 멀리 했으며

· 賦田十日耕(사전십일경) :

下賜(하사)받은 논밭 갈며살아간 清白吏(청백리)였노라

· 大明洪武25年壬申十二月(대명홍무25년(임신) 12월)
아!! 이보다 더한 激讚(격찬)이 있을까?

천하를 얻고 새 왕조가 된 이성계가 고려의 名宰相 梅軒(명재상 매현)을 欽慕(흠모)하며 高潔(고결)한 性品(성품)을 하늘 땅, 해와 달에 비유하고 정직하고 겸소한 청백리로 稱頌(칭송)하는 獻星詩(현정시)를 써서 하사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며 자랑으로 여겨 마땅하리라 본다.

2019. 7

대구경북 종친회 회장
염성해(23세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참의공(參議公) 염언상(廉彦祥) 장군(將軍)



염언상(廉彦祥, 1552년 ~ 1597)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이시다. 선무공신은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운 무신들에게 준 훈호로 1등, 2등, 3등의 3등급이 있었으며, 선무공신 1등 공신은 이순신, 권율, 원균 3인이고, 2등 공신은 이역기 등 5인이며, 3등 공신은 이운룡 등 10인으로 총 18인이고, 선무원종공신은 선무공신 외에 공을 세운 수종자(隨從者)에게 내린 칭호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염언상은 선무원종2등훈(宣武原從二等勳)에 추서되고, 철종 12년(1861)에 통정대부병조

참의(通政大夫兵曹參議 : 정 3품 당상관)에 추증 되었다. 염언상 장군의 묘소는 1992년 10월 21일 경상남도 문화재기념물 제117호로 지정되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염장군의 묘는 원분(圓墳)으로 묘의 앞쪽에는 상석과 기단석이 있으며 가족묘와 함께 묘역(894.6m²)을 이루고 있는데 장군묘 외에 묘의 위층(位層)이 가계순서가 아닌 사망순서에 따라 배치된 것이 역사적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입구에는 후손이 세운

‘선무원종공신염언상사적비(宣武原從功臣廉彦祥事蹟碑)’라고 세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 염언상은 통덕랑 염백련(묘소)는 보성군 문덕

면 양동리 소재)의 아들로, 조선(朝鮮) 명종(明宗) 7년(1552년), 전라도(全羅道) 보성(寶城)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병서를 즐겨 읽고 꾸준히 탐구 하였으며 무과에 급제하였다.

선조(宣祖) 25년(1592)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국가의 존립이 어지러울 때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 군정주책(軍政籌策)을 맡았으며,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최초의 해전인 거제 옥포대첩에서 적선 30여 척을 격파하는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한산도 대첩

에서도 공을 세워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 후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 투옥되자, 같이 압송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 차남(次男) 탁(卓)을 위시한 의병들을 이끌고 남원(南原)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하다가 권율(權慄) 장군의 휘하에도 참여하였다.

그 뒤에도 꽈재우, 이옥 등을 도와 왜적과 싸워 많은 공을 세웠다. 염언상(廉彦祥)은 하동(河東), 추풍령(秋風嶺) 등 주로 영(嶺) 호남(湖南) 등지의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나 46세를 일기로 추풍령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고려의 멸망과 무진참화 이후 은둔생활로 두문불출하던 파주염씨들은 임진왜란 때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의병을 일으켜 목숨 바쳐 싸운 공로로 선무

월종공신에 녹훈되기도 하여, 가문의 명예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 때에 공을 세운 염걸, 염서장군과 염경, 염홍립, 염세경 등과 함께 고려의 세도가였던 파

주염씨가 임진왜란 이후 조선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염언상장군은 나라에 충성하고 조선사회의 염씨가 문이 은둔에서 벗어나 양지

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한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 7
부산종친회장 염현식



잃었다 다시 찾은 廉氏姓의 受難史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생삼대명제(人生三大命題)로 “나는 어디에서 왔나?”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 했었다고 하는데 차제에 나는 우리 廉氏姓의 과거 수난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앞으로 갈 길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우리 廉氏는 본관이 坡州 단 일본으로 신라선헤여왕때 국

수 역시 우문관대제학에 이르는 등 당대의 존경받는 명문세도가의 반열에 있었으나 에석하게도 당시 신흥무신 집단인 崔○, 李○○의 계략과 모함으로 불행하게도 무진지화(戊辰之禍)의멸문참사(1388)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廉氏 삼형제는 결국 작고하게 되었고 수 많은 염문가족들이 무참하게 도둑을 당했으며 이를 두려워한 잔여 염씨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은둔 생활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이 때 廉氏姓을 타성으로 바꾸거나 본관을 坡州에서 당시 살고 있는 고장으로 바꿨을 개연성이 클것으로 추측해 봄직하다. 그 후 세종대왕때 박팽년등이 신설록(伸雪錄)을 지어 왕에게 상소하여 廉門의 원통함을 풀

아침에 집에서는 廉在善으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학교에 가서는 日本先生이 梅原在善(ウハラザイゼン)하면 “하이” (ハイ)하고 대답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옆집 廉○○는 창씨개명으로 송원(松原マツボラ)으로 바뀌는 등 한도 내 염씨는 집안에서도 다른 이름의 성씨로 갈라 놋으나 문중의 제사나 시제등 전래의 전통행사는 전과 같이 은밀히 진행 되었던 것이다. 잠시 小學敎 생활을 회상해 보면 2차대전 말기 최후 발악적인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교육은 일학년 어린이에게 우리 말과 우리를 (한글)을 못 쓰게하고 일본어 교과서를 강제로 암기시켜 일본어로 나는 '대 일본제국의식민(大日本帝國의 植民)이다.'천

해방시까지 36년간 식민지로 잔혹한 괴롭힘을 당한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며 이를 학습효과로 삼아 우리 자손에게는 이 뼈아픈 과거사를 대물림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세 번째 廉氏姓의 수난의 역사는 1950년 6.25사변으로 북한 인민군의 불법남침의 점령기가 아니었나 싶다. 우리 마을은 6월 28일부터 9.28수복될때까지 태극기의 대한민국 통치는 사라지고 인공기의 북한 인민공화국의 암흑세상이 훨씬었는데 우선 염씨성은 다시 렘씨로 바뀌어 낯설은 렘재선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고 좌우가 공존하여 상호감시하고 반동을 고발하라는 이분법의 체재로 바뀌어 서로 불신하는 불안

차고 확성기로 인민군 노래를 부르면서 각종집회를 열고 인민위원장, 여맹위원장을 공산당 각본대로 선출하고 또 낙동강 전선에 보내야 한다고 의용군도 차출했고 전쟁군수물자로 감자, 호박, 옥수수등을 조기 수확하여 소달구지를 차출 전달하게도 했는데 당시 강제로 의용군으로 차출되어 눈물속에 고향마을을 떠났던 李○○는 전선에서 행방불명되었고 朴○○는 먼 뜻 낫날 이산가족상봉 시 북한에 강제 납북되었음이 가족에 의해 확인 되었다. 결국 6.25사변의 참화는 한국군 415,000명 전사자를 포함하여 행방불명 납북된 실종된 희생자 1,321,836명이라고 하니 그 중에 무고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염씨성이 얼마일지 잘 모르지만 우

정에 참여했던 廉宗과 진덕여왕때 대신을 지냈던 廉長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으나 고려국의 개국과 후삼국을 통일 할 때 공적으로 삼한벽상공신에 책록되고 대사도 벼슬을 한 廉邢明을 시조로 모시고 廉悌臣 조상을 중시조로 하여 면면히 이어져서 오늘날 6만 9,387명(2015년 인구주택조사)이 대한 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중시조 廉悌臣(1304~1382)선조는 고려조의 공민, 충렬, 우왕때 관직이 도침의 중찬, 문하시중에 이르고 또 곡성부원군으로 책봉되고 호는 충경공매현으로 칭송되었으며 공민왕이 친히 그렸다는 초상화(1371)가 오랜동안 도난, 분실 등 우여곡절 끝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물 제1097(1991)로 지정, 소장증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만 중시조의 분묘가 북한땅 개성인근 장단군에 있어 지금은 성묘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국파공 선조의 유훈으로 忠孝爲節, 敦睦爲業, 虛榮不求, 安貧自娛가 금과목조처럼 전해지고 있는 중에 첫째 아들 국보와 둘째 흥방은 관직이 예문관대제학, 셋째 정

어 주었다고 죄항이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우리 廉門 들은 큰 한을 품은 채 살아왔는데 이는 廉氏姓이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통한의 슬픈수난사로 가슴속 깊게 각인 되어 있다.

두 번째 廉氏姓의 수난의 역사는 일제감정기(日帝強占期)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으로 이는 일제가 황민화(皇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우며 한국인의 성씨를 전부 없애고 우리 민족의 혼까지 말살시키려는 술책으로 이에 반대자는 불평불만을 품은 조선인 즉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분류, 특별감시대상자로 하여 학교 입학 등 각종 혜택을 박탈 또는 제외시켰는데 이는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시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천인공노할 야만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1938년생인 나는 겨우 일곱 살의 천진난만한 나이에 나의 원 이름인 廉在善이 창씨개명되어 염씨성은 사라지고 일본성씨인 매원(梅原)으로 바뀌어 梅原在善으로 道倉小學教에 입학하기가 되었는데

황폐하 만세'(天皇陛下萬歲)를 입에 달고 살게 했으며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모내기에 모침나르고 신작로 공사에 자갈 깨고 송충이 잡기와 광솔따기, 가마니치기, 주저, 제기등 놋그릇 공출하는데 이용당했으며 일본군에 강제 징병(徵兵) 되거나 징용(徵用) 당해가는 사람이 있을 때면 전교생이 동원되어 신작로 연변에 줄지어서 일장기를 흔들면서 일본어로 '대일본제국주의만세'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며 환송해야만 했던 주권없는 국가의 인권 없는 노예교육의 참담한 모습에 당시 실상이 아니었다 생각 된다. 학교에서 梅原在善으로 생활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하루아침에 창씨의 쇠사슬에서 풀려 그동안 앓었던 귀중한 廉氏姓을 다시 찾았으나, 1948년 정부수립시 까지는 염씨를 렘씨로 쓰기도 하는등 한동안 기준없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차제에 日本人의 만행의 역사를 회고해 보건대 삼국시대부터 왜구들의 부단한 노략질과 약탈행위, 1592년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의 7년간 전국토 초화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시대부터 1945년 8.15

한 풍조가 잠시 나타나니 시작하였다. 암흑세상이 휩쓸었는데 우선 염씨성은 다시 렘씨로 바뀌어 낯설은 렘재선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고 좌우가 공존하여 상호감시하고 반동을 고발하라는 이분법의 체재로 바뀌어서 불신하는 불안한 풍조가 잠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공산 괴뢰정권의 내무서에서는 마을 소작농민에게 농지를 반동인 악질 지주에게서 빼앗아 무상분면하여 소작농이 잘 살수 있는 '농민의 낙원' 인 새 세상이 왔다고 매일 선전하고서는 벼가 채 여물기도 전에 논에서 가장 잘 된 곳의 풋벼를 한평 넓이로 베어 내어 그 수량으로 기준으로 논 전체의 수확량을 확대 추정하고 이의 50% 생산량을 국가에 현납해야 한다는 공산당식의 불합리한 제도의 시행을 재촉하고 있었다. 만일 9.28 수복이 늦어져서 북괴의 계획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선전에 속은 농민은 고생만하고 가족의 식량은 고사하고 영농비용도 감당 못하는 난처한 (농민의 낙원) 처지가 됐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였다 3개월의 짧은 점령기간 중 공산당원들이 붉은 완장

리마을 염문중에서 실종된 희생자는 타시로 이주한 네, 다섯명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한국사람이 아닌 외국인으로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려다 희생된 고귀한 생명으로 미군은 전사자 3,094명 포함 16,532명의 희생자를 냈는데 이들의 숭고한 생명의 가치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그 후 수복후에도 오랫동안 렘씨로 바뀌었던 성씨는 과거의 나쁜 기억과 혼재되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염씨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렘씨성으로 존재하며 간혹 매스컴을 통해 운동선수, 당간부이름에 렘씨가 노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廉氏姓의 순탄치 만은 않았던 受難史를 단편적이나마 일별하였거니와 이제 우리 廉門은 같은 조상을 모시고 살면서 같은 이념(理念)과 가치관(價值觀), 같은 인식(認識)과 정서(情緒)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숙고해 보면서 우리 廉氏姓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려 깊게 고민해 보고자합니다. 2019. 7

道倉宗親會長 廉在善
(전 세명대총장)

동정공(홍방)유배지를 찾아서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용담리, 용담염씨의 파생지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용담리(현재: 산북면 용담리)는 2세조 廉興邦(東亭公)의 유배지이다.

동정공의 아들 3세손 치함致誠이 은거했던 곳이다.

첫째아들 각恪은 임실에 시거始居하고, 둘째 아들 성性의 일파는 여기 용담리龍潭里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연천등 경기일원에 흩어져 살면서 본관을 용담염씨龍潭廉氏로 하여 오늘날 까지 개관치 않고 살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이는 고려말 무진참화戊辰慘禍시 염문의 말살로 살아남기 위하여 파주염씨 본관도 바꾸고 뿔뿔이 헤어져 살기 위한 한 방책이 아닌가도 본다.

필자는 이 역사적인 유배지를 찾기 위하여 지난 6월 17일에 여주시박물관의 안내와 협조를 받아 현지 탐방을 할 수 있었다.

파주염씨 중시조 염제신廉悌臣의 둘째아들 廉興邦(동정

참화를 당했다.

가산은 몰수되고 가족조차 화를 입으니 금사리침류정은 주인을 잃고 오래 뒤에는 폐허가 되었고, 현재는 유허지도 모르고 그 흔적조차 볼 수 없다. 아직도 이 정자의 침류정 기문記文은 목은이색 牧隱李穡의 글로 지금까지 전하여 내려 오는 바, 그 침류정기문을 보면, 「염동정이 귀향살이 할 때 안으로 천령현(현여주시)에 옮기어 물가에 걸쳐 정자를 짓고 그 위에서 노닐며 쉬었다. 자석 침류漱石枕流 <돌로 이를 갈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 라는 말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태도를 이르는 진서 손초전 孫楚傳에 나오는 말> 말을 취하여 침류정이라 이름을 지었더니, 이미 풀려서 돌아와 나에게 기리를 청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동정은 선왕에게 알아줌을 만나 겸은 머리(젊었을때)로 재상이 되었으니, 금상에게 갚음을 도

강호에 먼데 처해있는 까닭으로 해서 임금의 근심함을 잊지 못할 터인데, 어찌하여 정자에 이름 한 것은 이와 반대 되는가 앞으로 시냇물에 귀를 씻어 세상일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려 함인가 앞으로 그 몸만을 깨끗이 하여 세상에 누를 미치지 않게 하려 함인가〉 하니, 동정이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대체로 물의 성질은 맑은 것이다, 그 기운이 사람에게 닿으면 빠에 사무치게 찬 것이다. 마음에 혼탁함이 이에 맑고 밝아지고, 마음의 혼들림이 이에 고요하여 안정하고, 상제를 섬길 수 있고, 사령四靈을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러므로 천일생수天一生水하며 오행五行의 장이 되었다. 만물이 번식하는 소리는 물의 공인 것이다>

- 후략 -

조선조에 퇴계이황도 관계官界에서 물리난 후 “물러나 시냇가에 살다 退去溪上”

선이나 같은 같은 정신으로 이어져 내림이 있다고 보인다.

동정공은 조선개국을 주도한 역적들에게 표적이 되어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 휘몰리는 불운을 겪게 되었지만, 그간 운명으로 600여년이 된 지금도 후손들에게는 용어리로 남아 있게 된다.

고려사는 조선초에 들어와 이성계가 정도전에 명하여 찬정이 시작됐으나 세종조에 편찬된 사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쓸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무진참화로 학살을 당한 동정공을 역적으로 몰았으니 불운 하게도 개국혁명에 희생양이 되고 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선조에 들어와 동정공의 억울함과 한을 세종 때 박팽년은 伸雪錄을 지어 임금께 올려 원통함을 풀어 주었고, 성현成峴의 慶齋叢話에서는 최영崔瑩이 무진년정월에 염홍방을 위시한 일족을 학살하였으나, 결국 같은

이 되 새겨야 할 점이다.

여주시금사면금사리 이포나루에서 본 남한강 물줄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고, 건너편에는 멀리 용문산이 드리워져 있었다.

둘레 길 이포나루 강변을 따라 가다 보니 세워진 정자는 혹시 침류정이 아닌가 하고 봤으나 당호도 없으니, 맘속에 자리한 조상님의 정자였으리라 생각해 보기로 했다. 강 따라 내려와 삼거리에 다다르니 마을 안쪽으로 가는 길이 보였다. 길 따라 2Km쯤 들어가니 용담리 마을길 안내판이 보인다.

역사의 현장이다. 산북면용담리(금사면이 산북면으로 행정 개편됨 1,989)에 들어가 봤으나 도시근교의 별장과 전원주택사이에 몇 채 춘락이 있었다. 고려 말 용담리 터전이었느냐고 촌노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이 없고, 다만 산천은 알고 있겠지만 대답이 없구나!!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공)은 고려 말 공민왕 우왕 왕조때 성균관대사성, 예문 관대제학, 지공거등 주요관직을 두루 지냈으나 권신 이인임의 폭정과 횡포에 대립하다 한때 파직되어 예천으로 유배되었다. 해배되어 한양 가까운 천령(지금의 여주)금사리에 자리를 잡아 거처로 하고 남한강강변에다 정자를 짓고 당호를 침류정 枕流亭 이라 편액하고 지냈다. 금사리에 은거 중 석방된 후 벼슬에 재 등용되어 권문세족으로 명성을 떨쳤으나 이성계 최영 조반등의 조선개국을 위한 모반으로 큰

모할 바를 다시 더 말하여 무엇 하랴! 말함은 형의形儀 됨을 피하지 못하고 일은 어려운 것을 사양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탁 한 것을 용납하고 혼들리고 격동하는 것을 진정하여, 굳센 기운을 금석보다 더하고 충성은 귀신을 움직였으니, 확고하여 혼들 수 없다고 이를 만하다. 비록 밖에 쫓겨 나왔으나 몸을 보존하고 생명을 온전히 하여 산수의 즐거움이 평일의 소원을 갚았은즉, 임금께서 보전하여 하게 해주니. 은혜가 하늘과 같다. 밥 먹고 숨 쉬는 동안에도 감히

이라는 의미를 취하여 퇴계 退溪를 자신의 호로 삼고 50세에 한서암 寒棲庵을 짓고 운둔과 성찰로 한 시대를 지냈다. 몸이 물러나 어리석은 내 분수에 편안하나 학문이 퇴보 할 가 늘그막이 걱정 일세 비로서 시냇가에 거처를 정하여, 흐르는 물 굽어보며 날마다 성찰하네.

退 溪

身退安愚分 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 臨流日有省

〈퇴계집 권1. 시〉

한 시대의 충절과 천리를 바탕으로 살아온 선비들은 고려때나 150여년 지난 후 조

해 6월에는 최영자신은 물론, 모시던 우왕禡王마저도 귀양 가서 죽으면서 염문참화의 일을 지나친 과오로 후회한 점, 이익은 星湖僊說과 조선의 문신들은 동정공의 억울함을 밝히고, 고려로서는 순신順臣 충신이었으나 조선개국파들에게는 역신으로 몰려 화를 입었다고 했다. 목은 이색의 침류정기에서 보듯이 공의 임금을 섬기는 충절은 가히 알만하다.

오늘에 와서 우리 후손들은 무진참화가 한恨으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불사이군의 충절과 권문세족으로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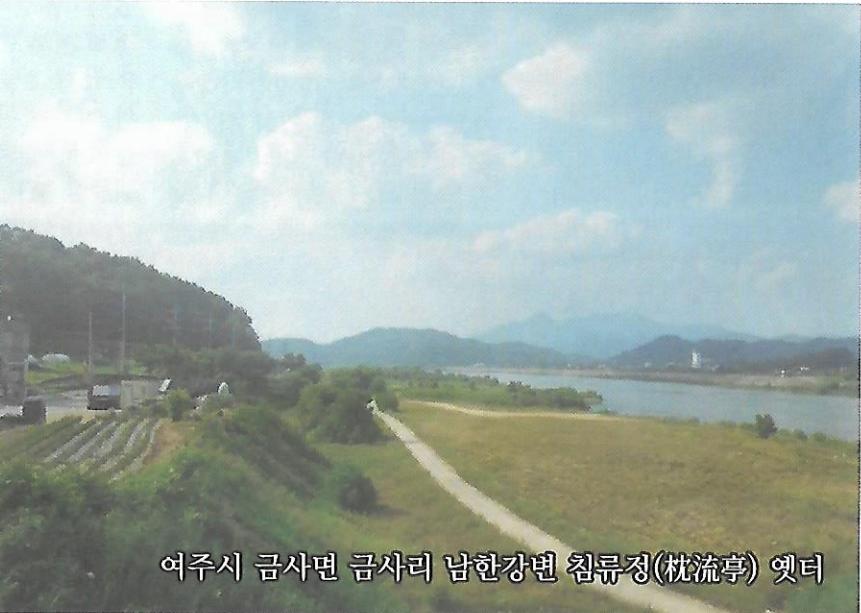
간 데 없다”는 옛 시조 한구절이 생각난다. 용담리 시골길을 헤매 이다 명한 가슴을 안고 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듯 산골의 여름 해도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2019. 8

대종회 부회장 염상열

〈참고문헌〉

1. 파주염씨대종회보
2. 여주시사. 여주군지. 금사면지
3. 고리사절요
4. 천년의 읊립 여강의 노래 (여주박물관)
5. 파주염씨대종회보제15호
(2002.무진지화의 재인식)
6. 퇴계의 사람 공부(이황저, 이광역)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남한강변 침류정(枕流亭) 옛터

종중(宗中)과 법

· 종중의 개념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자를 종원으로 해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종중은 같은 조상을 둔 자손들의 모임으로, 같은 조상의 산소를 보살피고 제사를 모시며, 족보편찬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단체나 모임과는 달리 인위적인 조직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다. 같은 시조(始祖)를 모시는 대종중과 그 아래에 각각 중시조를 중심으로 모인 여러 중소종중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종중과 비슷한 것으로 문중(門中)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비교적 작은 종중을 가리키는 것으로 종중과 개념상 차이는 없다. 이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성립을 위한 인위적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반드시 서면화된 종중규약(정관)이 존재하거나 대표자가 계속 선임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를 모시기 때문에 종중 회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들도 공동 선조의 후손이므로 종중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점차 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딸들의 반란 소송’ 이 그것이다. 용인이씨 사맹공파, 청송삼씨 혜령공파의 출가여성들이 제기한 종회회원 지위확인소송에서 2005. 7. 21. 대법원은 1, 2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종중 구성원을 성년 이상 남자로만 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하고 양성평등의 원칙 등 오늘날 변화된 우리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여성 후손도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 유사종중도 종중인가

종중과 유사하지만 종중의 본질에 일부 어긋나는 실체를 가진 단체를 “종중유사 단체” 또는 “유사종중 ‘이라고 한다.

하는 가장 큰 실익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상 종중의 재산은 명의신탁이 가능하지만 종중유사단체의 재산은 명의신탁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또한 종중 재산법률(부동산 실명법)상 종중의 재산은 명의신탁이 가능하지만 종중유사단체의 재산은 명의신탁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또한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종중은 성인 남녀가 모두 구성원이 되므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분배해야 하나 종중유사단체는 분배의 대상과 방식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종중 재산의 소유형태, 누구 명의로 등기할 것인가

모든 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종중 재산이다. 종중 재산이란 종중이 종중 본래의 목적인 선조에 대한 제사와 분묘의 수호 관리 등을 위해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중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등기법상 종중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의 부동산이 종중 명의로 등기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종가의 종손이나 종중의 유력인사의 단독 소유로 등기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명의신탁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 신신탁은 특별규정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종중 토지 관련 분쟁은 왜 빈발하는가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종중 토지에 대한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종중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대부분 특정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두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변화무쌍한 부동산 등록제도의 연혁과 관계이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사업과 사정작업을 거쳐 해방 후의 농지개혁을 시행하는 동안 권리에 대한 의식이 약했던 관계로 종중 토지를

· 종원이 팔아먹은 종중 토지 되찾을 수 있는가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종중과 소유명의인 사이의 대내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인 종중에 있지만 대외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수탁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종중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임의로 매매나 증여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형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매수인이나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종중은 그 토지를 되찾아 올 수가 없게 된다.

거래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중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토지 가액에 상당하

또한 종종은 법률상 자연인도 법인도 아니지만,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서 법률상 일정한 권리능력을 가지며 부동산 등기능력과 소송상 당자자능력을 인정받는다.

· “딸들의 반란 소송”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이 인정되는가

우리 대법원은 오랫동안 종중 구성원은 후손 중에 성년 이상 남자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 이유는 여성 후손은 출가하면 시댁 집안의 조상에 대한 제

종중은 종중원 자격이 공동 선조의 후손으로서 모든 성인남녀에게 자연발생적으로 부여되지만 유사종중의 경우에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서 일정한 범위로 구성원을 한정한다.

즉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이나 일정한 친족 범위내의 후손 또는 특정한 항렬 등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파주염씨 동정 공파 후손 중 경기도내 거주자”로 구성된 단체는 종중이 아니고 종중유사단체이다. 종중과 종중유사단체를 구별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묘산)와 제사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전답(위토), 제전 등이 있다.

종중 재산은 종중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중은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지는바, 총유라 함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즉 종중규약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종중 소유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하거나 종중 규약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지 못하였던 것이다.

국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하여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 등기를 의무화 하되 보증인의 인수보증만으로 등기가 가능하게 하였는데, 대부분의 종중에서는 이 과정에서 종중 토지를 종손 등 특정 종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상태에서 종중 토지의 확보나 관리에 관여했던 당사자들이 사망하고 관련 자료가 일실(逸失)되면서 토지의 소유권이 불명확하게 된 것이다.

과거 대가족제 하에서 종중원들간 결속력이 강하고 시제 등 종중행사를 열심히 치르던 시기에는 종손이나 기타 특정한 종원의 명의로 종중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문중과 종친개념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종중 토지에 대한 분쟁이 빈발하게 된 것이다.

는 가액을 종중 재산으로 회복할 수 있을 뿐이다.

· 종중 이야기를 마치며

또 한가지, 근래 부동산 가격의 급증과 개발행위의 확산으로 수많은 종중들이 종래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 경우 종원들 간에 보상금의 사용과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상들이 후손에게 문전옥답을 물려주면서 이런 사태를 결코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은 알뜰하게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이 후손의 마땅한 도리이다.

따라서 조상의 토지를 함부로 팔아먹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조상 데에 취득하게 된 망외의 굴려온 재산이 평온하고 화목하던 종중을 진흙탕 싸움으로 빠뜨리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2019. 6

염웅철

(법무법인 동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 동인(유한)은 170명의 변호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염웅철 변호사 주요 약력

-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5기
- 대전지검 흥성지청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제3부장검사
- 서울고검 검사(형사/행정), 대전고검 검사(형사/행정/특허)
-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인권과장·법무과장
- 청주지검 부부장, 서울동부·북부, 부산,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변리사 / 대한상사종재원 종재인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 고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워 15~18층 T.02-2046-3000

드넓은 만주 벌판을 달리며

- 염문의 독립운동 유적지 -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 동안 중국여행을 다녀 왔다. 그동안 10여 차례 중국을 여행했지만, 동북지방은 처음이었다.

수원문화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기획한 여행이였는데 종종의 형님들과 아우들이 함께 참여 하였다.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수원대학교 박환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면서 일행들에게 뜻깊은 강의를 해주었다. 25일 10시 반에 목단강 공항에착륙한 것으로 우리 44명의 중국여행은 시작되었다. 발해의 옛 도읍지 상경용천부와 흥륭사를 돌아보는게 처음 일정이었다.

만주지역은 고구려의 터전이 였다가 발해의 터전이 되기도 했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터전이기도 했던 곳이라 그런지 차창밖의 풍경이 낯익은 느낌이었다.

옥수수 밭이 끝없이 펼쳐지자 땅이 넓기도 하다고 탄성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졌다.

둘째. 날은 우리 문중에서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번 여행에 참여하게 된 추공 농장 터를 찾아갔다.

5시간 넘게 달려간 그곳은 그냥 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 그러나 그 곳은 염석주 지사의 열이 서린 곳이다. 그는 수원 울전동에서 1895년에 태어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4년 사망하였다.

소설 『상록수』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의 재정적인 후원자였고, 최용신이 27세의 나이로 1935년 요절하자 장례위원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특히, 만주에 추공 농장을 개설하였는데 수원과 안산 사람들 30여 호를 이주시켜 농사를 짓게 했다.

당시 수원 주변은 농업이 활성화 되었으므로 아직 논농사에 서툰 만주에 선진 농업을 이식 하였던 것이다.

특히, 염상천 도유사의 조부 모는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상태여서 일행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추공 농장은 약 60만평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으로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오상시 충하진을 흐르는 대석하의 물을 발동기로 끌어들였고

군대 막사처럼 지은 숙소에서 생활하며 마적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추공 농장에서 거둔 쌀은 전국공로훈장을 받은 김창환 장군에 전달되어 항일 독립군이 군량미로 쓰이는 한편 신흥무관학교의 재정으로 충당되게 하였다.

김창환 장군의 별명이 김석주요 호가 추당이므로 추당(秋當)에서 추공(秋公)농장이 비롯되었고, 염석주의 석주를 김장군이 가져가 별명으로 삼았을 만큼 둘의 신뢰는 단단했다고 한다.

김장군의 자녀들이 염석주 지사를 형님, 오빠로 불렀다고 한다. 현지 동포의 안내로 찾아간 추공 농장 터에

수원농협의 염규종 조합장은 본인이 바빠서 부인을 대신 보냈으므로 우리 염가의 일행은 모두 16명이였다.

조만간 비석 하나라도 세워 염석주 지사의 뜻을 기렸으면 한다.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으면 더 할 나위가 없겠다.

셋째. 날은 하얼빈에서 일정을 시작하였다. 안중근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의거 현장을 보았고 기념관도 찬찬히 둘러보았다. 731부대의 생체 실험 전시관도 자세히 보았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면 세균까지 이용해 대량학살을 도모하였을까. 일본인들의 추악한 면모를 살펴보는 계기가 하나 더 추가 되었다. 하얼빈 공원에서는 안 의사의 친필을 새긴 비석도 보았는데 거리에는 백 년전 러시아 건물들도 즐비했다.

한편으로는 고층 건물들도 많이 보이고 도시가 깨끗해

객도 많아서 그리 괴적하지는 않았다.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대련에서 보냈다. 안중근 의사와 신체호 선생이 투옥했던 여순 감옥에 갔는데 인파가 엄청 났다.

요즘 중국에서는 역사유적지 방문이 대세라고 박환 교수 말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안타깝다면서 혀를 찬다.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여순 관동 법원에도 갔다.

여순 박물관도 둘러 보고 숙소에서 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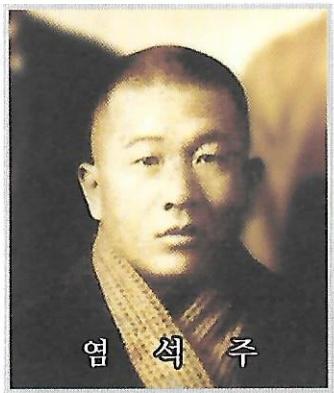
마지막 날 역시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가랑비가 내렸다.

호텔 주변의 천진가를 둘러보며 일행은 유적을 잘 지킨 중국에 경의를 표했다.

100여 년 전의 건물과 거리를 고스란히 지켜서 당시를 표현하는 영화를 촬영해도 좋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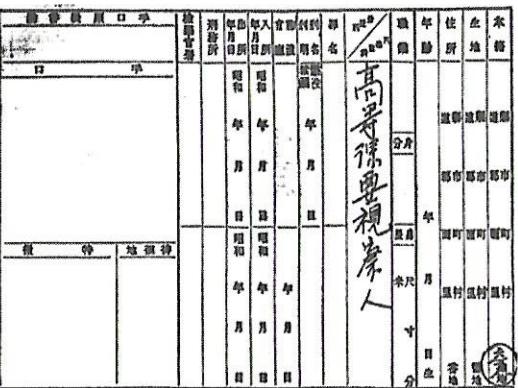
들을 자아냈다.

김좌진 장군의 유적지에서는 장군의 선구자 같은 일생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또한, 그곳에 정미소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피살당했다고



염석주

이번 여행에 동행한 염상덕 수원문화원장의 조부모와 부친, 염상천 대종회 도유사의 조부모 역시 염석주 지사를 따라 추공농장에서 일했다.



는 아무런 안내판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현수막을 펼치고 사진을 찍었다. 언제 다시 이곳을 오랴 다섯 명은 부부가 함께 참여했고, 다섯 명은 남자들만 왔는데

서 중국의 발전 속도를 실감하게 되었다. 하얼빈 고속열차역으로 갔다. 대련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고속열차는 우리보다 빠르지 않았고 정차역이 많았다. 중국답게 송

만충묘와 기념관, 대련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도 보았고, 러시아 거리를 거닐다가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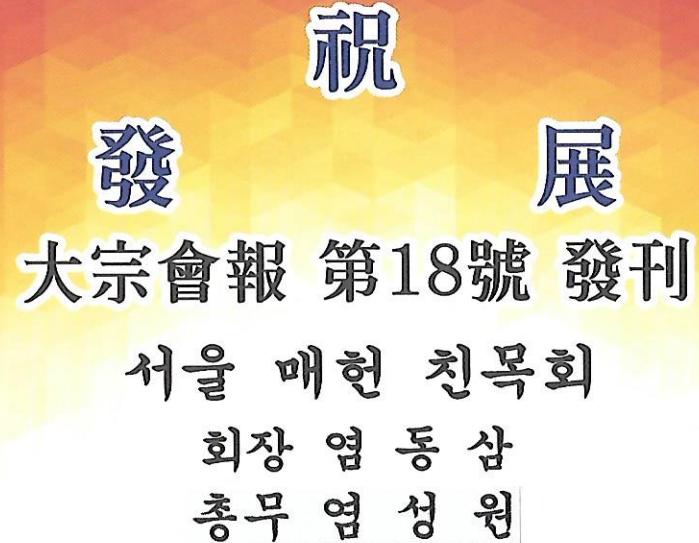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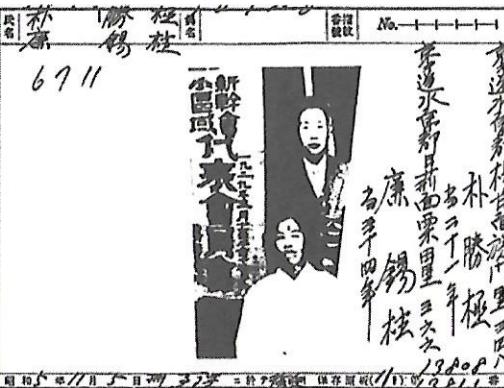
나의 10여 차례 중국여행은 대부분 관광이었지만 이번엔 역사여행이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여행이었다고 자부한다.

다소 빠빠한 일정에 힘은 들었지만 행복한 피로를 느끼며 돌아왔다.

2019. 8

수원종친회 염상옥



수원 농협조합장 의지



안녕하세요. 파주염씨 국파
공파 23세 염규종입니다.

2019년 성하지절(盛夏之節)
종친(宗親) 여러분의 건승
(健勝)하심과 가정에 만복
(萬福)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수원시 울전동은 저희 선조
께서 300여년 전 뿌리를 내
려 지금까지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전동에는 신간회 (회장 여
운형)의 수원지부 간부이자

북반주의 독립운동단체 생육
사의 일원으로 활동하신 독
립운동가이며, 민족의 지도
자였던 애국지사 염석주 선
생님의 후손으로 현재는 염
태영 수원시장, 염상덕 수원
문화원장등 많은 분들이 지
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상의
열과 맥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종친(宗
親)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무
엇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3일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수
원농협 14대와 15대를 이어
제 16대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를 믿어 주시고 지지하여 주
신 종친(宗親)분들에게 거
듭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종친(宗親)분들과 가족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
원농협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핵가족화 그리
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심
화로 나날이 각박해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흐름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도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신
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사람의 인생가치는 달라질거
라 생각됩니다. 우리 농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5,000년
전부터 농민이 사회의 기반
을 이루는 공동체인 농경사
회를 근간으로 촌락을 형성
하였으며, 농업을 ‘농자천
하지 대 본(農者天下之大
本)’이라 하여 사실상 국가
재정기반과 국민경제를 유지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저출산, 고
령화, 그리고 산업혁명 등으
로 농업활동의 구조적 환경
이 변화되어 매우 어려운 실

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농업을 단
순히 먹거리만 생산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 및 홍수
방지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스
위스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
으며, 공공체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중이
며, 수원농협은 전국
1,200여개 지역농협중 대표
도시농협으로서 농업의 공익
적 가치를 알리고 도농상생
(都農相生)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자신의
의 뿌리이듯이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저는 이번 농협조합장 선거

에 서 ‘불변농심(不變農
心)’을 슬로건으로 수원농
협 조합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농업
인의 복지향상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수원농협 복
지타운’을 구상하며, 농업
인이 행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수원농협의 발전과 농민조합
원의 복지향상, 그리고 우리
종친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 할 것을 약속 드리
며 파주염씨 후손으로써 선
조들의 명예에 누(累)가 되
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친(宗親)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
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祝
發 展

대종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원종친회 회장 염상복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수원농협
모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농협 효원미, 진상미

수원시와 수원농협은 지역농업인이 생산한
경기적인 효원미, 진상미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기도 G마크를 획득한 품질 좋은
효원미, 진상미는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및
경제사업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계양로 39
* 전화번호 : 010-236-4123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단암로 103
* 전화번호 : 010-200-4074



孝道란 사전적의미로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즉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하였다. 傳統적으로 우리 民族이 내세울 만한 그 중의 하나가 孝였다. 孝를 바탕으로 살았고, 孝를 저버린 사람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 孝를 이처럼 중히 여긴 傳統은 수천 년을 거치며 우리의 뒷줄 속에 면면히 흘러 내려와 思考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면에서도 하나의 존재 양식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 民族은 예로부터 父母에게 孝道하고 老人을 恭敬하는 美風 良俗을 지닌 국민이다. 그러나 오늘

날 사회가 급격한 變化를 경험하는 동안 서구의 價值觀을 무비판 쪽으로 受容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구의 가치관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게 되어 현대사회에서 孝는 封建的 낡은 가치관의 유물처럼 輕視 하는 경향마져 있어 孝라고 하면 예부터 전해내려오는 전설로 現時代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존경 받아야 할 老人이 賤視 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됨으로서 老人の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觀點에서 우리 一族들과 孝行에 대하여 한번 再論 해보고자 한다. (筆者は 고등학교 2학년 때 先親께서 돌아 가셨고, 오랜 기간 軍생활로 훌로 계신 어머님을 형님께서 봉양을 하였음으로 난 제대로 孝道 한번 해드리지 못한 것이 憾이 되었다)

孝란 무엇인가 한편 생각하면 孝는 우주의 本體요, 萬

孝行에 對하여

物의 根源이고 萬古不變의 진리며, 윤리 도덕의 源泉인 셈이다. 즉 東西古今의 종교와 사상을 뛰어넘는 인간 생활의 必修不可缺의 規範이라 하겠다. 기독교의 십계명에서는 孝行 윤리적 敎訓으로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불교에서도 孝를 가장 높은 道德律 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대승본생지관경」에서는 "아버님 恩惠 높기 泰山과 갖고 어머님 恩惠 그 깊이 바다와 같다"고 하였으며

「부모은중경」 다섯 번째 노래는 마른자리 진자리 가려 누시는 恩惠의 노래이다. 세상에 태어난 恩惠중 낳아주고 길려준 父母의 恩惠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그 무엇 보다도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儒教에서는 孝를 倫理의 유품가는根本으로 삼고 있다.

「효경」은 "父子 사이의 道理는 하늘의 本性이다 (父子之道天性也)"라고 孝를

말하였고, 孔子는 天地의 本性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고 사람이 행할 道理로서 孝만큼 큰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명심보감」 孝行篇에 子曰 孝子之事親也에 居則致其敬하고 養則致其樂하고 病則致其憂하고 褒則致其哀하고 祭則致其嚴이니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씀하였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적에는 기거(起居)함에 그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는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이 드시면 그 근심을 다하고, 초상(죽음)을 당하면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지내게 되면 그 엄숙함을 다하느리라고 하였다.

菊坡公先祖 遺訓에서

- 忠孝爲節(충효위절)
- “효도하며 충성하고”
- 敦睦爲業(돈목위업)
- “우애하고 화목하며”
- 虛榮不求(허영불구)
- “허영심을 내지말고”
- 安賓自娛(안빈자오)
- “빈안해도 즐거해라”

라고 하시였다. 즉 "忠孝"가 유품이다.

이는 우리 坡州廉門의 '家訓'이 "忠, 孝"임을 잘 알 수가 있다. "忠"은 마음을 다함을 忠이라 한다.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함이 근본의 뜻으로, 반듯이 王에게 대하는 길만이 아니라, 父母, 弟兄, 朋友에게 대하는 길인 孝, 悌, 信도 또한 "忠"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忠孝"라 하면 일반 道德을 관통하는 근본적 情態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감히 筆者가 생각하는 오늘 날, 孝行은 자신의 本分(사회적, 가정적)에 충실하고, 적령기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子息을 낳고, 오손 도손 誠實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父母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2019. 6

廉澈龍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졸업(석사)
육군 소령 예편
現) 한자.한문지도사(1급)



K.S 금성건설공사(주)

측량 · 설계 · 감리 · 시공 · 안전관리 · 특급기술자

기술이사

김 정 식

전남 나주시 내영산2길 29 (삼영동)
T. (061) 332-8855
F. (061) 333-6969
M. 010-3716-6622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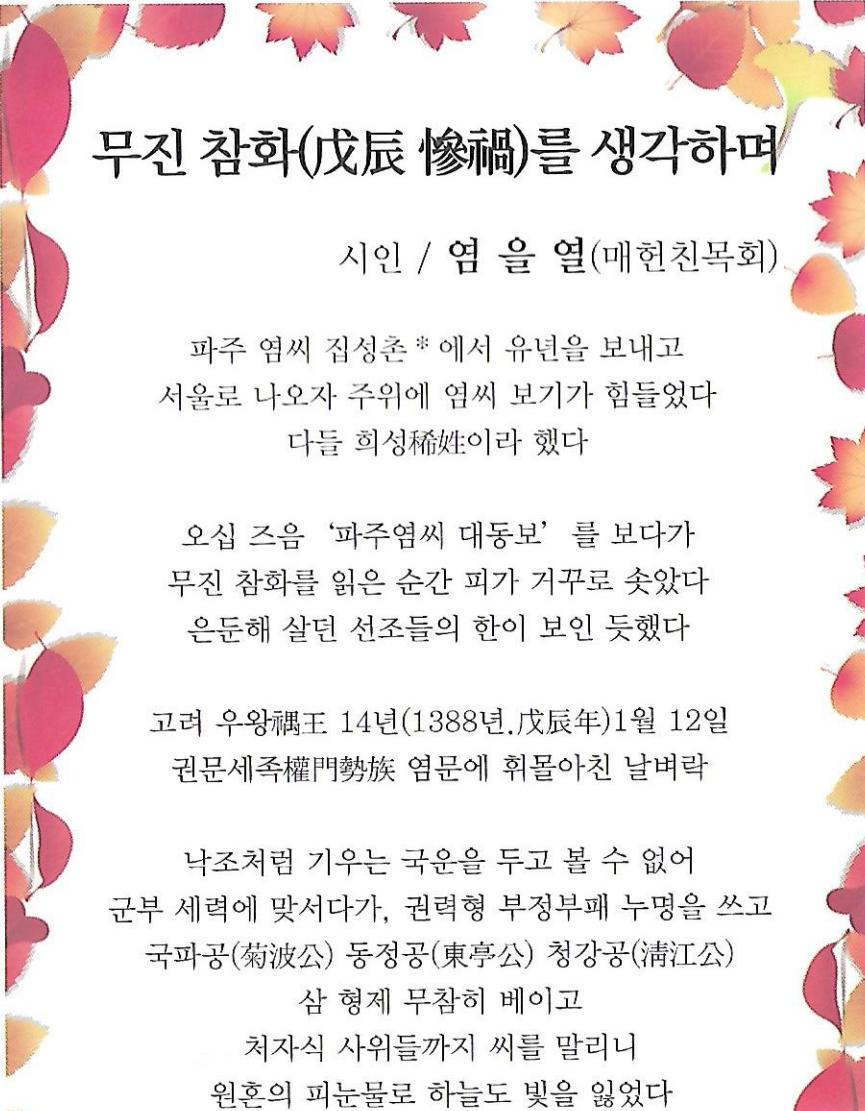
염 세 환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472
T. (061) 337-4747~8
F. (061) 337-4749
M. 010-3603-6680



광주 · 전남·북 최초 PVC코팅 철망 KS인증
단체표준표시인증업체 ·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 전자 족보 등록 및 수정 안내 ◆

2018년 대동보에 누락 된 분들의 신규등록과, 등록자 중 자녀, 손자 등이 출생한 경우 추가 등록 및 기존 등록된 자료에서 별세 등으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하여 접수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규등록 : 염씨 1인당 1만원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무료)
- ▶ 수정신청 : 현재 무료
- ▶ 신청방법 : 인터넷 족보등록, 족보수정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절차대로 수정함.
- ▶ 홈페이지 : <http://www.pajuyom.kr>
- ▶ 염명선총무이사 H.P : 010-8958-8800

※ 가승보가 필요하신 일가분은 전자족보 등록 후 염명선 총무이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종회 제공 -

파주염씨 전자족보를 운영하고
관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투잡으로 하실 분 환영)

송악을 벼리고 전국각처로, 만주, 러시아, 미주美洲까지
뿔뿔이 흩어져 보낸 잿빛 같은 암흑의 세월
조선 왕조 내내 따뜻한 별뉘 한 번 쯤 적 없다

역성易姓혁명의 비극을 합리화한
승자의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후손들
보이지 않은 족쇄에 묶여 오백여 년이 흘렀다

이제, 대한민국 헛별 아래 활기 찾은 혈족 6만여 명
나도 그 중 한 명임이 자랑스럽다.

* 전남 보성군 문덕면 내동마을 출신

1. 자격 : 파주염씨 일가분(역사적 조예)

2. 능력 : 다루어야 할 프로그램들

가. 사용한글 – utf-8

나. PHP 5.2 버전

다. Mysql – 5.1 버전

라. Html

마. High-Logic FontCreator – 한문 글자 폰트 제작

바. Editplus

사. Adobe Acrobat – 편집 가능한 것

아. 테크노트 7.5 버전 게시판 연동

자. 기타

※ 배우면서 할 수 있음(인수인계 시)

3. 보수 : 2020년도 총회에서 토의

염낙귀 세무사무소

T. 061-371-5050

F. 061-371-8448

M. 010-3609-6701

E. yeom6022@daum.net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43 (화순군청 민원실 옆)

농협 356-0813-4967-93

NEXIA
INTERNATIONAL
三德會計法人

회계감사
법인 및 개인세무상담
조세불복

공인회계사

염 인 선

Mobile. 010-9401-9788

E-mail. isyace@naver.com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8 S&S빌딩 7층

대 종 회 소 식

1. 회무보고

① 2018년도 총회 결과 (2018. 3. 10.)

▶ 참석 인원 : 40명

▶ 토의사항

의제	제목	처리	비고
제 1 호 의안	2017년도 예산·결산 승인		
제 2 호 의안	2018년도 예산 심의안		
제 3 호 의안	전자족보 현황 및 대동보발행 보고(안)	통과	시행완료
제 4 호 의안	대동보발행 결의(안)	통과	시행완료
제 5 호 의안	전자족보 관리자 선정. 보수건		예산 등
제 6 호 의안	2018년도 회보발행(안)		시행완료
제 7 호 의안	강화사단 정비 계획(안)		시행완료
제 8 호 의안	영천사단주차장	통과	검토
	뿌리공원 행사 참여 회비	보류	전액납부 요구
	대종회 조직		미결
	강화사단 주차장 실효지배		감나무9그루/식재

- 대종회 상임원원회 구성 및 회의 문제

- 영천. 임실 시제 날짜 조정 문제 → 임실 음10. 7일 (2019.1)

② 무술보 발행 (2018년도)

▶ 발행부수 : 300질 (1질 6권)

▶ 가격 : 1질 210,000원

▶ 착불 택배로 배달

※ 전자족보 (등록자수 8,254명) 20.6% · 등록목표 40,000명

■ 전자족보 유지 관리 - 구인 광고

2. 2018년도 예산 결산 승인 안

■ 수입

과 목	금 액	비 고
이월금	5,995,686	농협
이월금	1,462,340	우리은행 → 농협
강화현성금	24,850,000	염기봉명예 회장 2천만원
찬조금(발전기금)	3,500,000	
광고협찬	1,200,000	대종회장 2건 / 수원종친회 2건
기간중이자	14,243	
계	37,022,269	

■ 지출

과 목	금 액	비 고
회의비	550,000	총회증식비
강화제수비	2,262,500	운반차량비. 위생용품 제외
강화사단정비	17,920,000	둘례식12자, 잔디, 포크레인
재산세	925,530	강화영천
벌초, 제초제	700,000	물주기. 인건비(2호)
향긋대	900,000	
회보발간	2,800,000	부족분지출 → 1,600,000
세금	1,970	통장이자
계	26,060,000	
이월금	10,962,079	2018.12.23. 잔액
합계	37,022,079	

③ 강화사단 정비

- ▶ 재 원 : 염기봉명예회장님 20,000,000원 현성금
- ▶ 정비범위 : 둘레석으로(12자) 정비, 잔디 조성
- ▶ 공가기간 : 2018. 5. 24 ~ 5. 31
- ▶ 공사비 : 17,920,000원
※ 대종회보 제17호 참조 – 강화사단 연혁

④ 대종회보 제17호 발행

- ▶ 발행부수 : 2,000부(12면)
- ▶ 배포 : 지역종친회 및 수도권 개별 발송
- ▶ 비용 : 대종회장 광고 2건 수원종친회 2건 1,200,000원
부족분은 대종회 일반 회계
- ▶ 평가 : 염문가정에 배포 – 반응, 성과여부

⑤ 대종회 현금 자산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전기예탁금	207,463,705	4개 금융권 분산 (2019.3.23.만기)
전자족보통장	36,985,541	
무술보발행통장	13,848,301	4질 보관 중
일반통장	10,962,079	2018 집행 후 잔액
계	269,259,626	

※ 무술보 발생에 따른 격려금

⑥ 향사 참석

- ▶ 나주 영천 – 대종회장
- ▶ 임 실 – 수석 부회장
- ▶ 수 현 사 – 염규현 보령 회장님께서 2019년 참석요청 했으나 미참석

3. 2019년도 예산 심의 안

■ 수입

과 목	금 액	비 고
이월금	10,962,079	통장잔고 제1호의안
찬조금	3,500,000	
강화현성금	5,000,000	
회보발행 광고비	3,000,000	
계	22,462,079	

■ 지출

과 목	금 액	비 고
회의비	1,500,000	
강화제수비	2,500,000	
재산세	1,000,000	
벌초비	600,000	
향촌대	900,000	
잔디보강	3,000,000	잔디, 인건비
제초제	600,000	인건비 3회
회보발행	2,800,000	
경조비	800,000	
뿌리공원회비	200,000	미납 전액요구
우편물비	300,000	
소계	14,200,000	
예비비	8,262,079	
합계	22,462,079	

4. 본관정정 (廉의 인구 2015년 통계청)

■ 지역별 인구 (69,387명)

지 역	인 구	지 역	인 구	지 역	인 구	지 역	인 구
서울	13,959	광주	3,274	세종	352	충북	2,602
부산	4,017	대전	3,411	경기도	18,968	충남	2,742
인천	4,343	울산	1,156	강원도	2,672	전남	2,439
대구	1,602	경북	1,866	경남	3,599	제주	269
전북	2,116						

■ 본관별 인구

지 역	인 구	지 역	인 구	지 역	인 구	지 역	인 구
개성	16	성주	85	원주	31	청하	27
경주	256	수원	7	의령	13	충주	9
곡성	99	순창	30	이천	39	파단	8
광주	15	순천	13	인천	7	파주	57,531
기주	7	신령	12	임실	7	파천	45
김해	19	심주	11	장주	17	파평	5,515
나주	205	안동	27	장흥	10	평산	69
능주	15	안산	33	전주	192	평주	11
단양	64	안의	33	지주	8	평창	12
단천	30	연일	85	진양	5	평택	16
달성	15	영광	44	진주	88	평해	25
무주	74	영월	6	창녕	68	피주	6
문경	14	영해	19	창원	10	한양	33
밀성	22	옥계	7	천안	19	함열	70
밀양	44	옥천	11	청년	5	함창	11
보성	148	온양	12	청도	35	해남	6

6. 강화현성금

순위	소 속	성 명	금 액	비 고
1	대 종 회	염 문 규	300,000	대 종 회 장
2	보 성	염 태 권	100,000	보 성 회 장
3	전 주 종 친 회	염 동 호	100,000	전 주 회 장
4	임 실 종 친 회	염 상 섭	100,000	임 실 회 장
5	임 실	염 관 록	100,000	전 주 총 무
6	수 원 종 친 회	염 상 복	500,000	수 원 회 장
7	춘 천 종 친 회	염 순 길	300,000	춘 천 회 장
8	안 양 종 친 회	염 동 구	200,000	
9	매 현 친 목 회		100,000	
10	매 현 친 목 회	염 동 삼	200,000	매 현 회 장
11	수 원 종 친 회	염 상 천	100,000	대 종 회 도 유 사
12	대 구 종 친 회	염 종 우	100,000	대 종 회 자 문
13	대 구 종 친 회	염 성 해	100,000	대 구 회 장
14	대구경북종친회		100,000	
15	대 종 회	염 상 열	100,000	대종회수석부회장
16	부 산 종 친 회		100,000	
17	부 산 종 친 회	염 현 식	100,000	부 산 회 장
18	안 양 종 친 회	염 만 승	300,000	안 양 회 장
19	대 구 종 친 회	염 태 수	100,000	
20	대 전 종 친 회	염 기 광	100,000	대 전 회 장
21	서 울	염 배 식	100,000	대 종 회 이 사
22	서 울	염 육 철	100,000	대 종 회 이 사
23	도 창 종 친 회	염 재 선	300,000	도 창 회 장
24	남 양 주	염 재 호	200,000	
25	광 주 종 친 회		200,000	
26	광 주 종 친 회	염 동 련	100,000	광 주 회 장
27	대 종 회	염 은 식	100,000	대 종 회 이 사
28	대 종 회	염 철 용	100,000	대 종 회 이 사
			4,400,000	

※ 대종회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2019. 4. 15 대종회장 염 문 규

불상	31	용담	2,715	청룡	30	해주	34
삼가	5	용섬	5	청산령	25	기타	580
서원	205	용택	217	청용	5		
서천	9	용표	6	청원	15		
시흥	23	울산	5	청주	51		

▶ 추진계획 : 2019년 본관정정의 해

- 지역종친회 • 흥보. 본관신청안내. 실적유지
- 대종회 • 흥보 본관확인

▶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법원에 비치)

- 제작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결 론 : 대종회 및 지역종친회에서 본관 정정을 하도록 결의함.

5. 2019년 대종회 발전기금

순위	소 속	성 명	금 액	비 고
1	도 창 종 친 회	염 재 선	200,000	대 종 회 자 문
2	안 동 종 친 회	염 덕 상	500,000	대 종 회 자 문
3	광 주 종 친 회	염 금 섭	500,000	대 종 회 자 문
4	김 해 종 친 회	염 규 일	100,000	김 해 회 장
5	보 성 종 친 회	염 태 권	100,000	보 성 회 장
	계		1,400,000	



7. 2019년 각 地域 享祀日(안내)

(음력기준	강화 – 토요일기준)			
명 칭	일 자(음)	지 역	신 위	행 사 주 관
盤溪影堂 (반계영당)	3월21일 土 (2/15)	경남. 함양	충경공	거창회장 염재욱 010.3883.1159
忠敬書院 (충경서원)	4월9일 金 (3/5)	전남. 나주	충경,국파, 청강 15위	나주 유림
龍江祠 (용강사)	4월7일 水 (3/10)	충북. 옥천	충경공 外 7위	용호종친회 총무 염태성 010.5406.2753
龜淵祠 (구연사)	4월19일 月 (3/15)	충북. 청도	충경 국파공 5위	
淸溪影堂 (청계영당)	4월19일 月 (3/15)	전남 보성	충경 국파공 5위	보성 종친회장 염태권 010.9724.5679
孝坪祠 (효평사)	3월14일 日 (2/16)	대전. 대덕	충경,국파 청강공	효평종친회총무 염윤수 010.4603.1135
柳川祠 (유천사)	4월23일 金 (3/19)	전남 화순	퇴은당 4위	화순종친회장 염일중 010.4600.3838
江華사단 (강화시재)	4월13일 日 (2/30)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충경공 外 3위	대종회회장 010.7731.9788
水鉉祠 (수현사)	10월2일 金 (9/4)	충남 보령 미산	충경 국파공	보령종친 회장 염규현 02.362.7407 총무 염인선 010.2852.8267
永川사단 (영천시재)	10월30일 土 (10/3)	경북 영천	재상공 국파공	부산종친회 회장 염현식 010.3585.9999
敬思濟 (경사재)	11월3일 土 (10/3)	임실. 신평	동정공 外 40위	임실종친 총무 염신섭 010.8701.1902
羅州사단 (나주시재)	11월1일 月 (10/5)	전남 나주	충경공 外 7위	광주종친 회장 염동련 010.3615.6638
忠義祠 (충의사)	11월14일 日 (10/18)	경남 통영	참의공 外 11위	부산종친 회장 염현식 010.3585.9999

※ 향사일 음력 기준으로 – 행사주관 종친회 확인 필요

※ 경사재 – 일정조정(임실종친회)

※ 용강사, 효평사 – 일요일(대전종친회)

지 방 종 친 회 소 식

1. 부산종친회 제84회 정기총회

- ▶ 일 시 : 2019년 5월19일(일)
- ▶ 장 소 : 부산은행 빌딩 1층
- ▶ 고문, 자문 위원 및 감사

고 문	염덕수	염한호	염상술
자 문		염여명	
감 사		염정욱	

▶ 회장단 및 이사

회 장	염현식
부회장	염규창
이 사	염강순. 경동. 규열. 민선. 봉준(총무이사) 선영. 수창. 승우. 현주. 호영

▶ 2018년 경과 보고

- 영천도선산 묘제. 나주충경성원. 옥천용강사향사 참례.
- 청도구연사참례. 통영충열사 참례
- 2018년도 월례회. 이사회 개최 6/19. 7/24. 9/19. 10/16.
11/20. 12/19
- 2019년도 1/22. 2/19. 3.19. 4/23

▶ 2018년 영천시제 상차림(3상) 지출내역

- 세부사항 생략

▶ 영천도서사 밤씨묘 이전 수진내역 (2017.4월)

회 장 단	
회 장	염동련
총 무	염필환
재 무	염기범

※ 광주 파주 골프회

- 회장 염한수(20세손)
- 총무 염규봉(23세손)
- 참석인원 : 25명
- 매월 둘째주 목요일
- 나주 부영cc에서 라운딩행사

※ 염문의 화합과 단합의 행사

4. 뿌리공원 조각상 물청소

- ▶ 일 시 : 2019년 7월
- ▶ 대전 종친회 회장 염기광, 총무 염원배 외 종친회와 다수가
파주염씨 조형물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함.

5. 수원 종친회

- ▶ 상위명칭 : 신검공파 (12대조) 수원 율전동 거주 전체종원
- ▶ 하위명칭 : 북실공파 (15대조) 장파 북석공파 (15대조) 지파

■ 조직(장파)

직 위	성 명	비 고
회 장	염 상 천	북실공파

수 금	시 풀
대종회 현성(수원종친회) 10,000,000원	2017 방씨이전비 13,000,000원 2010이전 대지계약 1,000,000원
영천기금 3,000,000원	기록물 보관소 출장 115,000원
부산종친회 기금 1,651,200원	판결문 번역 복사 140,000원
	2010년 출장여비 164,200원
	2017년 출장여비 232,000원
계 14,651,200	계 14,651,200

※ 제 84차 정기총회 (2019년) 회의록 요약 발췌

2. 대구 경북 종친회 정기총회

- ▶ 일 시 : 2019년 6월30일
- ▶ 장 소 : 신동점식당(동촌유원지 내)
- ▶ 참석인원 : 40명
- ▶ 토의내용
 - 2018년도 총무보고 및 재무보고
 - 2019년도 사업계획
 - 임원개선

직 책	성 명	비 고
고 문	염학광, 염종우	
자문위원	염덕상, 염영수, 염일해	
회 장	염성해	유 임
부 회 장	염길성, 염복진, 염상운, 염성용, 염순천	
감 사	염성영, 염종욱	
총무이사	염길순	유 임

3. 광주 종친회 및 염우회(청년)합동 총회

- ▶ 일 시 : 2019년 6월 14일
- ▶ 참석인원 : 50명
- ▶ 내 용
 - 광주종친과 청년모임인 염우회가 년2회 시행
 - 종친회 활성화 의견 교환
 - 10월 5일(음) 도선산 시재 준비

직 위	성 명	비 고
회 장	염 상 복	북석공파
부 회 장	염 상 덕	"
사무국장	염 상 옥	"
총무부장	염 상 천	"
이 사	염상오, 염영학, 염상구, 염상국, 염태영, 염기선	"
감 사	염상빈, 염철이	"

■ 행사

구 분	시 기	대 상	비 고
정기총회	1월중	종원	감사보고, 회계보고, 예산보고, 사업계획보고
입학축하금	3월초	입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벌초	9월초	종원	수원시울전동, 화성시백미리
제수비, 경로비	명절, 추석	종원	경로비, 만65세이상 (세대주, 며느리, 출가여성)
시제	11월중	종원	수원시울전동, 화성시백미리
행사	년중	임원	경로잔치, 이웃불우돕기, 일일찻집, 동. 행사

※ 파주염씨 회보는 광고협찬으로 완성되어 일가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고협찬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